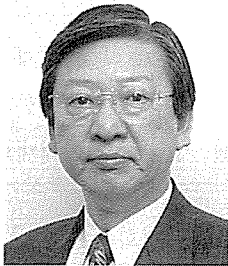


과학기술력은 곧 국가경쟁력이다



鄭助英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상임부회장)

우리의 산업화전략은 대량생산/수출중심에 기초를 두고 산업조직면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이, 기술력에서는 해외기술도입과 개량이 핵심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나 앞으로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단순한 양적성장 추구

로 도입과 모방이라는 Catch-up전략에서 창의와 독자라는 혁신전략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와함께 가까운 장래에 남북한 통일이 실현된다는 전망아래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보다 적극적인 범국가차원의 ST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단계별 ST발전 시나리오〉 1) 2000년까지 1단계 : 현재 힘쓰고 있는 반도체/자동차/조선/가전 등에서 세계 일류기술을 확보하면서 낙후된 소프트웨어/정밀기계/자동차/컴퓨터 등에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보/생명공학/신소재/신에너지기술 등의 기초역량을 확보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선진경제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2010년까지 2단계 : 21세기 미래개척분야를 이끌어 나갈 최첨단기술개발역량을 확보하면서 환경/에너지/생명공학/복지기술 등 공공기술의 획기적 도약을 도모하고 항공우주/해양/핵융합 등 첨단복합기술분야에 도전하는 기반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구현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2020년까지 3단계 : “삶의 질”을 구현하는 공공복지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거대과학, 미래첨단기술의 실현을 통해 복지와 삶의 질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로 △과학기술조직체계의 개편과 종합조정 △과학과

산업의 연계체제 강화로 기반기술 확충 △R&D 확보와 기술 하부구조 구축 △기초과학 육성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여성인력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설정 및 시스템 구축 △독창적인 독자기술 개발 △민간에 대한 기술확산 촉진 △국제협력 강화 △지역별 특화기술 중점 육성지원 △과학대중화운동 전개 △과학기술관련법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해결방안〉 1) 국민에게 과학기술을 이해시키고 윤리와 기강이 확립되며 창조·능력·합리라는 3대 과제를 생활화함은 물론 국민 각자가 하나의 기술을 갖도록 하는 “전국민의 전문화운동”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 무한경영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5백만 과학기술인이 각 분야별로 적극 동참하는 과학기술 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독창적인 기술개발력을 발굴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3)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이 신장되고 과학기술인이 과학기술분야 전문직에 배치됨은 물론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정책이 실현되도록 각종 제도와 관행 그리고 정부조직이 바뀌어야 한다. 4) 과학기술인이 홍보요원이 되어 정당과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인사에게 과학마인드를 심어주고 과학기술전문인을 연합하여 정보화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론〉 국가발전이 과학기술혁신이라는 기치아래 기술력이 곧 경제력이며 국력이라는 등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과 지도력이 가장 중요하므로 대통령의 과학기술비전과 연구개발프로그램 구상 그리고 실행단계에서 강력한 정책의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5백만 과학기술인 모두는 이와같은 목표가 달성되도록 조직추진체를 중앙과 지방에 결성하고 오늘과 같은 대회도 지방에서 개최하는 등 한목소리를 내면서 오는 12월 18일에는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경영을 이끌어 나갈 진정한 과학대통령”을 선출하도록 총 진군해야 할 것이다. ①⑦